

<인문논술 한권완성> 정오표

정오사항으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.06.09

- 기본편

추가 날짜	위치	내용

- 심화편

추가 날짜	위치	내용
2026.06.09	15p “1단락 독해하기” 부분	<p>오탈자를 수정해야 합니다.</p> <p>[수정 전] 첫 문장에서 바로 필자의 입장이 드러난다.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‘고정불변’이 아니라 ‘변화’하는 것이다. 전통과 이단의 가변성이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임을 확인한다.</p> <p>[수정 후] 첫 문장에서 바로 필자의 입장이 드러난다.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‘고정불변’이 아니라 ‘변화’하는 것이다. 정통과 이단의 가변성이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임을 확인한다.</p>
2026.06.09	148p [표 2] 독해 부분	<p>내용을 교체해야 합니다.</p> <p>[교체 전] [표 1]은 국내 유통 바나나 가격에서 유통업체와 농장주가 대부분의 비중을 가져가는 반면 근로자 임금은 극히 낮은 비중을 그친다는 분배 구조를 보여준다. 자본을 가진 쪽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실제로 땀을 흘리는 노동자가 적은 몫을 받는다. 이 구조는 공정무역이라는 ‘착한 소비’가 왜 필요한지의 배경을 제공한다. [가] [나]에 적용하자. 불공정한 분배를 개선하려면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정무역제품을 선택하는 실천이 필요한데, 이는 [가]의 큰 몸을 세워 이기적인 작은 몸을 이끄는 행동이자 [나]의 공동체적 행동에 해당한다. [표 1]은 뒤이은 [표 2]~[표 4]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.</p> <p>[교체 후] [표 2]는 40.6%, 41.0%, 30.5%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범주에서 착한 소비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. 역발상을 해 보자. 69.4%는 아직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고, 59.0%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고, 69.5%는 기부금 자동 적립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음을 도출할 수 있다. 이는 [가]와 대응된다. ‘큰 몸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, 아직은 과반수 ‘작은 몸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.</p>